

2017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KBS N은 올해에도
여러분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KB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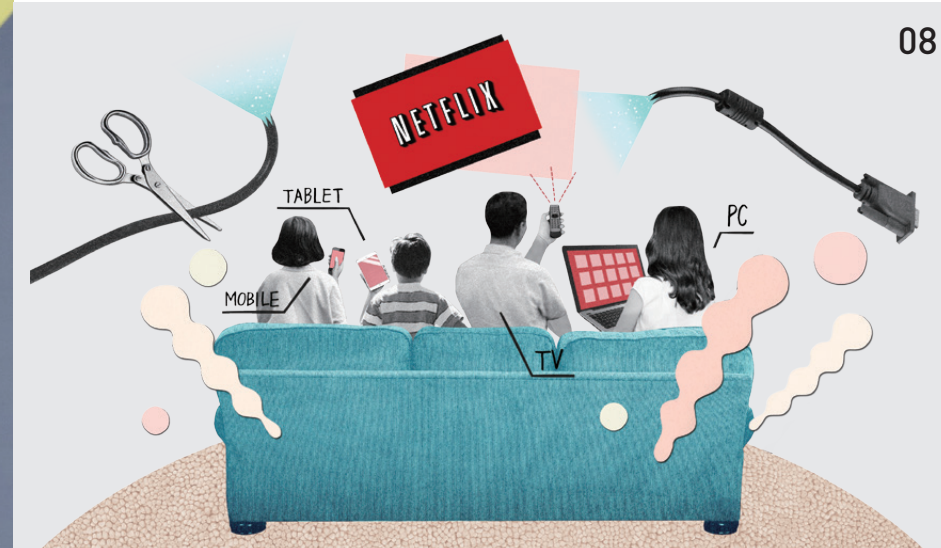
m a g a z i n e

VOL.10 JANUARY. 2017 KBS N

2017

희망찬 내일이 밝아온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짜 궁금했던
스타들에 관한 모든 것!
차트 질주가 시작된다!



www.KBSN.co.kr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7.1.9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www.thednc.co.kr)

CONTENTS

JANUARY. 2017 VOL.10

- N special**
 - 04 KBS N 시무식 현장
 - 07 KBS N의 2017년 비전
 - 08 변화와 진보, 2017년 방송 트렌드 전망
- N program**
 - 12 화제의 신규 프로그램 <주간TV>, <닥터하우스>, <연애를 부탁해> 매력 분석
- On air**
 - 14 경기장 안과 밖
신승준 배우 캐스터의 숨 가쁜 하루
- Interview**
 - 16 범상치 않은 신입사원
염상엽, 조진혁 아나운서 인터뷰
- N together**
 - 18 KBS N과 스카이라이프가 함께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후토스 어린이 행복 공연
- Review**
 - 19 KBS 월화드라마 <화랑> 리뷰
- N news**
 - 21 KBS N-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업무협약 체결
- Notice**
 - 22 2017 KCBL 연예인 농구리그



틀을 깨는 혁신과 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KBS N은 새해 업무 시작에 앞서 사무식을 갖고 올 한 해 목표와 희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와
마음가짐

지난 1월 2일, KBS N은 사무식을 갖고 2017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준용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19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사무식은 중국 명나라의 철학자인 <채근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책 속의 구절을 통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고정관념을 버릴 것, 느리지만 꾸준히 꿈을 향해 나아갈 것 등의 가르침을 전하며

새해를 맞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올해 입사한 KBS N의 새내기 직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이 공개됐다. 청문회를 패러디



“이제 KBS N은 기존의
‘채널 유통중심 사업’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성장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한 <신규 입사자 검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신입사원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짓궂고 장난스러운 모습 뒤로 “새해에는 직원 모두 의기투합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콘텐츠
경쟁력을 통한
자립 성장의 원년

이날 사무식에서 이준용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을 밝혔다.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 다섯 가지의 덕을 가진 동물인 닭의 해를 맞아 활기차고 희망찬 정유년의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새해 덕담을 건넨 이준용 대표이사는 “2017년 국내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종편과 IPTV의 가파른 상승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지상파 UHD 본방송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경기 불안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송시장을 걱정하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KBS N이 기존의 '채널 유통 중심 사업'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며 2017년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성장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 목표로 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 채널은 제작역량 강화와 시장성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광고의 통합 마케팅 솔루션 구축과 채널 유통 플랫폼 확대를 제안했다. "케이블을 넘어 지상파, 디지털, 오프라인 자원을 통합 활용하고, 신규 뉴미디어로의 적극적인 플랫폼 확대를 통해 광고와 수신료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채널과 연계한 신성장 사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틀을 깨고 KBS N 보유 채널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목시켜 수익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어지는 신년사에서 이준용 대표이사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을 강조하며 "2017년 새해엔 KBS N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관행과 습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뜻을 이롭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합시다"라고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변화와 성공을 이끄는 생각의 힘

시무식의 마지막 순서로 김수홍 인천대교 사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성장하면 회사의 경쟁력도 커진다"며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스스로 변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이준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시간 동안 직원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다. 강인한 마음가짐과 변화의 의지를 품고 2017년 KBS N은 새로운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N special 02 KBS N의 2017년 비전

PROGRAM PROVIDER에서 CONTENT PROVIDER로의 변혁

KBS N이 2017년 비전을 밝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콘텐츠 생산자(CP)로의 변혁이 바로 그것이다. 올 한 해를 KBS N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성장 원년의 해로 정하며 성장과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 바빠졌다. KBS N이 2017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채널 포트폴리오 재정립

채널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여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KBS N은 보유하고 있는 6개 채널(KBS Drama, KBS Joy, KBS N Sports, KBS W, KBS Kids, KBS N Life)을 광고채널과 사업채널로 차별화하여 각각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며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 통합 마케팅 솔루션 구축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시장의 속도에 맞춰 360도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구축, 광고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케이블을 넘어 지상파, 디지털, 오프라인 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플랫폼 외에 신규 뉴미디어로의 적극적인 플랫폼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채널연계 신성장 사업 추진

KBS N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앞서 차별화한 사업 채널에 특화된 신성장 사업을 추진, 사업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채널 가치와 연계된 트렌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KBS N 브랜드 사업 모델로 확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변화와 진보, 2017년 방송 트렌드 전망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되고 플랫폼이 빠르게 진보하는 시대. 이에 따라 방송계 안팎으로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바쁘다. 2017년 새롭게 주목받을 트렌드는 무엇이고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는 어떤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올해 방송 트렌드를 전망해본다.

2017년 방송 예능의
트렌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01

추억, 공동체, 희망의 키워드

유홍식 교수

2017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대통령 선거 등의 요소로 경기가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불안과 위기의식이 한층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의 구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2017년 예능 프로그램들은 '추억·향수', '공감·공동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꿈과 희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들은 증폭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희망을 갈망할 것이다. 경험해 보았던 '아름다운추억'에서 위안을 찾는 심리적 장치를 작동시킬 것이다. 또 한 축으로는 '느림의 미학'을 넘어서 물질만을 채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비움의 미학'이 사회적 트렌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주목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올 것도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열풍을 가져왔던 'Pokemon Go' 같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접목해 시청자들의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탄생될 가능성도 있다.

나홀로, 일상 관찰, 여성 예능의 확대 기대

김교석 평론가

"다함께 혼자 산다." 가수 박정현이 <비정상회담>에서 남긴 이 말은 내년 예능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거실에 모여 TV를 보면서 나누던 수다는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보며 SNS에 글을 쓰고 인터넷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TV예능을 시청하는 개념 자체가 가족 오락 차원에서 개인 차원의 일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내년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두드러질 경향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고민을 충실히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과 예능의 결합이다. 따라서 예능 콘텐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일상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더욱 치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1인 가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나홀로' 콘텐츠다. 지금도 텔레비전을 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혼술, 혼밥 프로그램처럼 방송의 주 시청층이자 대중문화의 큰손으로 떠오른 1인 가구에 관한 기획들이 내년에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능이 점점 더 세상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조우하면서 최근 사회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한 페미니즘 등과 같은 주제와 흐름이 예능 콘텐츠의 영역으로 스며들어올 것이다. 특히 금녀의 구역이었던 예능에서 여성성, 여성 예능인에 주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미디 빅리그>의 '자매들', <비디오스타> 및 여러 여성 코미디언들의 약진 등은 이러한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씨앗들이다.



유홍식 교수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김교석
대중문화 평론가

웹 콘텐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웹 콘텐츠의 전망과
방송사의 대응방안이
궁금하다.

02

TV와 웹, 모바일의 하이브리드 콘텐츠

유홍식 교수

2016년 한 해는 '모바일 전성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2016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광고는 전년대비 14% 감소하여 8,152억 원에 머무른 반면, 모바일(인터넷) 광고는 17% 증가하여 1조8천억 원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제 TV보다 휴대폰을 더 필수적인 미디어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과자를 먹듯 짧고 편안한 웹드라마, 웹예능,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즐겨보는 '스낵 컬처(snack culture)'를 향유하고 있다. 웹드라마 편수는 2015년에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누적 재생수는 7배 상승하기도 하였다. '양방', '대도서관', '악어', '영국남자', '김이브' 등 1인 창작자(creator)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MCN(Multi-Channel Network)의 대표주자인 'DIA TV'는 650여 개의 1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억 2천만 뷰(view)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웹예능 <신서유기2>는 국내에서 월 평균 6천 4백만 뷰, 중국에서 2억 8천만 뷰를 기록

하여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콘텐츠의 소비가 모바일로 수렴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2016년 동안 약 3천억 원 정도의 방송광고 감소를 경험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웹·모바일 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주목할 것이다. 지상파방송 입장에서 웹 콘텐츠에 대한 대응 또는 상생 방안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영향력 있는 1인 창작자를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1인 창작자를 관리하는 MCN은 사실상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발굴된 1인 창작자를 지상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맷을 개발하여, 상생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웹드라마, 웹툰 등의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방식의 확대이다. <미생>, <치즈인더트랩> 등을 통해 확인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신서유기>와 같이 TV와 웹·모바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의 활성화이다. TV에 방점을 두면서, 모바일에서의 스낵 컬처를 위한 10분 내외의 분절형 콘텐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플랫폼의 제약을 넘어서는 멀티 플랫폼 전략의 필요

김교석 평론가

웹 콘텐츠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당연시되는 조건이 있다. 이동 중에 모바일 기기로 보기 편하며, 주로 이용하는 10~20대 세대에 맞춤형 스킨 컬러 콘텐츠여야 한다. 따라서 웹 콘텐츠는 짧은 호흡, 가벼운 전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직설 화법과 B급 정서, 클로즈업, CG를 과다 사용하는 등 방송문법과는 다른 웹 콘텐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들은 웹 콘텐츠가 확실한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기 전에 자리 잡은 선입견이다. 시청 환경이 변했다고, 콘텐츠를 선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TV를 보던(는) 사람들이 웹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살림은 절대로 줄일 수 없고, 한껏 높아진 눈높이와 취향을 내리는 일은 살을 빼거나 금연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올해 최고 히트 웹 콘텐츠가 방송문법 그대로 제작한 tvN의 <신서유기> 시리즈이고 SBS <고효의 별이 빛나는 밤에>, KBS <마음의 소리> 등은 웹에서 성공하고 방송으로 편성됐다. 적은 투자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웹, 모바일, 방송 모두 노리는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본격 선회다.

따라서 우리도 서사와 질이 담보되는 방송문법에 충실하면서, 변화한 시청 형태와 콘텐츠 소비환경에 맞게 회당 15~20분 내외의 숏폼(shortform) 포맷의 콘텐츠를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모바일과 웹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방송 포맷으로, <빅뱅이론> <모던패밀리> 등 미국 방송가의 최고 흥행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다. 에미상이 올해 이 부문에 여섯 개의 상을 신선했던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더 이상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구분하는 것은 패착으로 이르는 길이다. 스킨 컬러 콘텐츠도 의미와 서사가 있어야 하는 시대다. 짧고 가벼운 시도가 더 이상 능사가 아니다.



2017년 방송 플랫폼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방송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03

● 규제 개혁과 외부 DNA 확충

유홍식 교수

2017년 예상되는 변화의 큰 물결은 지상파 UHD방송의 개시와 규제 개혁이다. 지상파UHD방송의 기술표준으로 정해진 'ATSC 3.0'은 IP기반의 다채널 및 양방향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동 중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채널간 결합(channel bonding)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상파에게 새로운 방송전략의 구사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향후 지상파 방송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사업자(예: jtbc, CJ E&M, Netflix 등)가 연합콘텐츠 채널전략을 구사한다면, 지상파UHD방송은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상파연합의 모바일 OTT플랫폼 'pooq'을 더 진화시켜 듀얼사업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갈등

도 격화될 것이다.

2017년 지상파UHD방송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것이 규제 개혁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의 첫 출발점은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산적한 갈등적 현안들을 논의하기 '규제개혁 논의기구'의 출범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초반에는 지난 4년 동안 상업방송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공영방송의 구조개혁에 집중된 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지상파중간광고의 허용',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제도적 구분 현실화', '동일방송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도입', '미디어간 인수합병 허용과 간소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논의기구의 롤모델(role model)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방송구조개혁위원회'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방송구조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예상되는 큰 변화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외부 DNA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 노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상파방송은 방송DNA로만 사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이전과는 채용방식을 통해 모바일, IT, VR, 데이터분석, AI 등에 능숙한 전문가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DNA의 흡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의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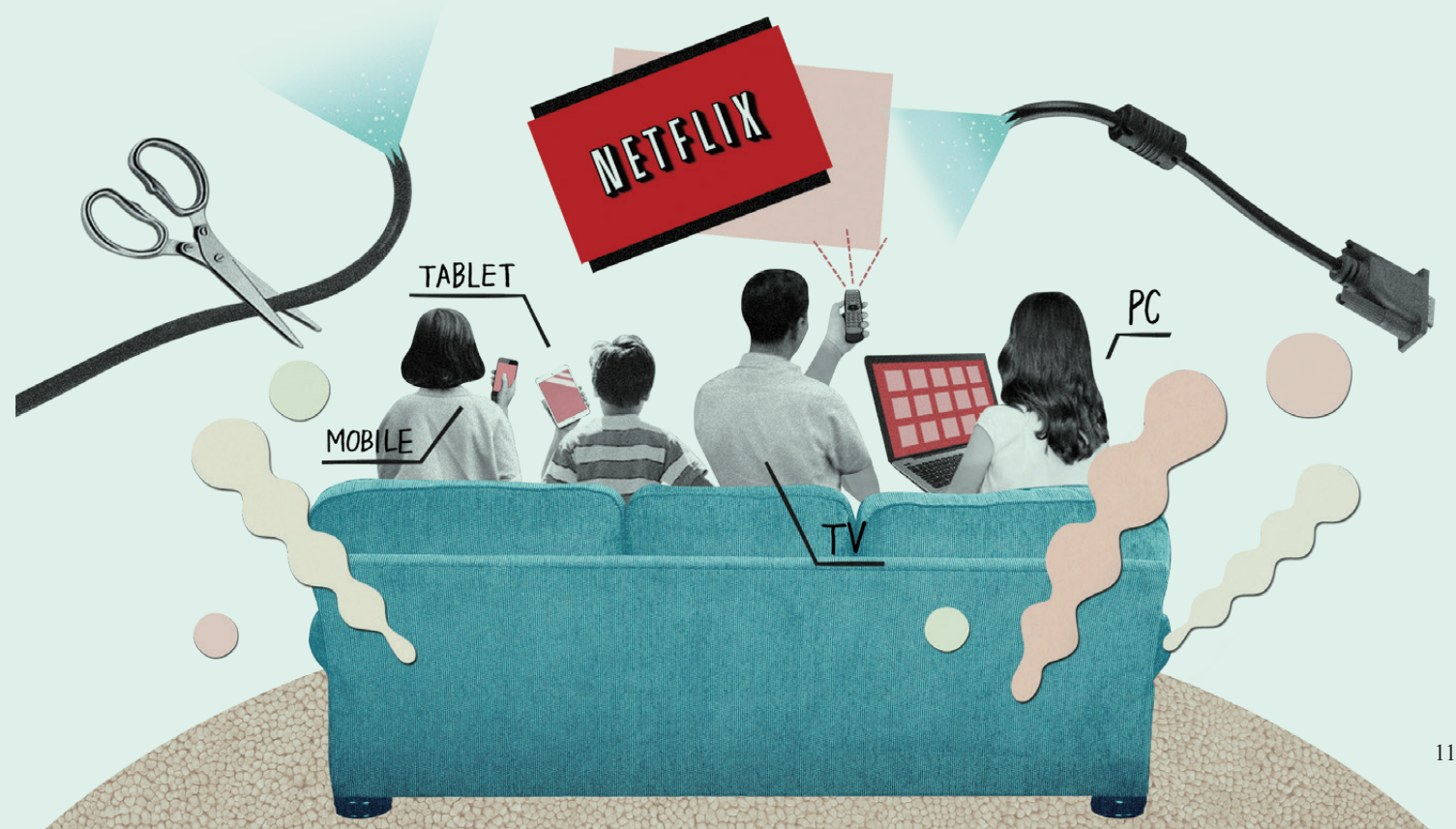
● 채널 브랜드의 강화와 블록버스터의 승부

김교석 평론가

방송가에선 TV를 안 보는 시대라고 자조적인 푸념을 하는 만큼, 코드 커팅(위성, IPTV, 케이블 등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고 가속화될 미래다. 이런 현실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이 가야 할 길은 플랫폼 전투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사업의 영역임이 자명하다. 길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코미디 등 구체적인 타깃 시청자들이 신뢰할 만한 채널 브랜드를 만들

거나 승부를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블록버스터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로 접어들수록 블록버스터에 대한 필요와 의존성이 비례해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굳이 파레토 법칙을 가져오지 않아도 창구가 많아지고, 쏟아지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 더 나아가 선별이란 쿼레이션을 원한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을 단순명료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블록버스터다. KBS와 KBS N 등 관련 자회사들이 대형 방송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을 공동 설립한 것은 관련 업계의 논란과 별개로 납득이 간다. 이제 블록버스터 없이는 채널의 존재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블록버스터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가 콘텐츠의 국경과 장벽을 해체하는 블랙홀이라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 세계 190개국에 8천만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지구촌 공통 유료 방송 사업자다. 이를 경쟁자나 침범으로 받아들이길 게 아니라 동맹군 혹은 해외 보급로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던 콘텐츠 사업의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블록버스터의 기획은 앞으로 더욱 더 절실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제의 신규 프로그램 그 첫 인상 평가는?

<주간TV>, <닥터하우스>, <연애를 부탁해> 매력 분석

KBS N의 신규 프로그램 <주간TV>, <닥터하우스>, <연애를 부탁해>가 나란히 첫 방송을 탔다. 화려한 출연진과 신선한 콘셉트, 알찬 구성으로 첫 방송부터 화제 물이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세 프로그램의 매력과 차별점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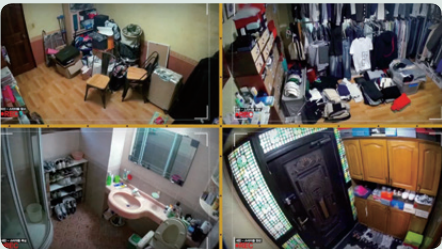
응답하라
그 시절 그 사건

타임슬립 연애사(史)
<주간TV>



“1986년 최고의 CF 스타였던 천하장사 이만기는 당시 광고료로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었을 정도였죠.” 타임슬립 연애사(史) <주간TV>는 10년, 20년, 30년 전 연예계 사건 사고를 되짚고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던 연예계 뒷이야기를 들춘다. ‘1980년대 월별 인기 탤런트 순위 차트’, ‘1986년 한 해 탤런트 소득 랭킹’ 등 당대 연예계의 생리를 엿볼 수 있는 기밀 정보와 ‘역대 영화제 수상 내역’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제공한다. 출연진 간의 케미도 방송의 재미를 더한다. 90년대를 풍미한 스타 이승연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일종이 공동 MC를 맡아 진행에 균형을 잡아준다. 리포터계의 시조새 조영구는 30년사를 넘나들며 숨겨진 비화를 폭로하고 칼럼니스트 김태훈은 박학다식한 정보와 화려

한 언변을 자랑한다. 장영란은 엉뚱한 매력과 돌직구 질문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베테랑 연예부 기자 홍종선은 팩트 사냥꾼으로 활약한다. 방송인 이준석은 브레인답게 새로운 관점으로 연예계를 해부한다. 연예계 비하인드 소식뿐 아니라 과거 추억을 소환하는 것도 <주간TV>만의 매력이다. 1화에서는 가수 김승진 이, 2화에서는 전설의 DJ 김기덕이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그 시절 못하던 이야기를 전한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추억은 현재를 풍요롭게 한다”는 김기덕의 말에 MC 이승연은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정체성입니다”라고 호응한다. <주간TV>의 매력과 역할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다.



똑똑하게 잘 버리는 법
강제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
<닥터하우스>



<닥터하우스>는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리와 버림, 비움의 미학을 전하는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다. 살림의 여왕 박미선과 깔끔남 서장훈, 대세남 양세찬의 막강 MC 라인이 공개되고 첫 번째 주인공이 ‘아이돌’이라는 예고편이 방송되며 <닥터하우스>의 첫 방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드디어 베일을 벗은 주인공은 가수 장수원이다. 그의 어머니가 “10년도 넘은 물건을 버리지도 않고 쌓아두는 아들 때문에 답답하다”며 <닥터하우스>에 도움을 요청한 것. 실제 그의 집안 곳곳은 신발과 옷가지, 16년 전 활동할 때 받은 선물과 온갖 운동기구로 가득했다. 특히 150여 켤레의 신발들은 상자에 넣어진 상태로 현관과 방, 화장실에도 쌓여 있어 MC

들이 허를 내두르기도 했다. MC들의 설득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마침내 강제 집 다이어트가 시작되고 버리기와 정리정돈을 통해 변화된 집의 모습이 공개됐다. 결과는 해피엔딩. 쾌적함, 실용성, 여유까지 잡으며 MC군단과 의뢰인 모두를 만족시켰다. <닥터하우스>의 집 다이어트 과정이 특별한 것은 수많은 물건 속에 묻혀있던 집에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일깨워주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된 가구와 옛날 가전제품, 안 쓰고 안 입는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된다. 집이 좁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버리기 프로젝트’를 실천해 볼 것.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닥터하우스>가 알려 줄테니 말이다.



답답한 연애를 향한
속 시원한 일갈

리얼 러브스토리
<연애를 부탁해>



<연애를 부탁해>는 연.알.못(연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신개념 연애 예능 드라마로 “지금 연애를 막 시켜서 모르는 게 많은데 <연애를 부탁해>를 보며 도움을 받고 싶어요”, “<연애를 부탁해>를 통해 이제는 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등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며 관심을 모았다. <연애를 부탁해>는 사랑의 대리 복수극 ‘막장 연애 종결 서비스’와 가상의 목소리가 연인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러브 보이스’로 구성된다. ‘러브 보이스’에는 훈남 배우 심지호가 뭔가 문제 있는(?) 커플로 활약하고 ‘막장 연애 종결 서비스’에서는 나르샤가 ‘나 언니’로 분해 고구마 같은 막장 상황에 사이다로 반격해준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철저하게 현실을 투영

한다. 전세 값까지 빼서 빌려준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살 집을 계약한 구남친, 여자친구를 두고 직장에서 다른 여자와 씬을 타는 연하의 남자친구 등의 사연은 주변 어디엔가 있을 법한 이야기로 격한 공감을 안겨준다. 현실을 꼬집는 데에서만 끝나지는 않는다. 억울함을 복수해주는 ‘나 언니’와 커플의 오해를 풀어주는 ‘러브 보이스’는 현실 연애에서 맞본 좌절감을 보상해주고 진정한 연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억울하고 답답한 연인의 사연을 전하지만 <연애를 부탁해>는 연애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실패했으니 이젠 사랑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패를 딛고 더 행복한 사랑을 만들라는 격려다.

On air

경기장 안과 밖 신승준 배구 캐스터의 숨 가쁜 하루

6개월간의 V리그 대장정이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시즌 내내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은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시청자들에게 배구의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배구 캐스터들 역시 저마다 치열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낸다. 올해 7번째 V리그를 맞이한 베테랑 배구 캐스터 신승준 아나운서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방송 중계를 준비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사무실이 아닌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로 향한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인터넷 라디오 <V리그 토크쇼>의 생방송 준비를 위해서다. 2주에 한번, 목요일 오전 11시~12시에 방송되는 <V리그 토크쇼>는 배구에 대한 궁금증과 이슈를 풀어내고 V리그 시즌 현황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전날 저녁에 대본을 받으면 어떤 흐름으로 방송을 진행할지 미리 체크한다. 경기 중계와 달리 라디오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배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다.



10:00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V리그 토크쇼>
준비



11:00

배구 도사 박희상
해설위원과의
본격 입담 과시
라디오 방송



‘on-air’에 불이 켜지면 경기 시작을 알리는 선수의 서브처럼 신승준 캐스터의 오픈링 멘트가 울려 퍼진다. “국내 유일 배구를 이야기하는 라디오 토크쇼 <V리그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 V리그 이슈를 짚어보고 실시간 댓글로 올라오는 청취자들의 배구 궁금증에도 답한다. 평소 ‘배구 도사’ 박희상 위원과의 두터운 친분이 라디오 진행에서 더욱 돈독한 케미로 나타난다. 배구 선수 전화 인터뷰와 승부예측 코너까지 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본격적인 경기 중계 준비가 시작된다. 각 구단과 선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늘 중계의 포인트를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V리그는 한 시즌동안 남녀 경기를 합해 총 220여 경기가 주6일간 매일 치러진다. 오늘처럼 서울에서 중계를 하는 날은 시간이 좀 여유롭지만 대전이나 청주, 구미 등 지방에서 경기를 하면 이동 중에 중계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평균 격주로 3~4회 정도 지방 출장을 가지만 스포츠 캐스터에게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몸이 피곤하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필수다. 유별난 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계 전달은 과로나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인 우리카드-대한항공 선수들이 입장하고 관중석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지면 비로소 경기의 막이 오른다. “왼쪽, 스파이크, 타닥, 득점!” 경기가 고조될수록 신승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배구는 랠리를 통해 득점하는 반복의 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브, 같은 스파이크라도 상황에 맞게 다른 표현으로 전할 때 중계의 맛이 산다. 음성이나 톤도 그때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 저음, 고음, 발성, 샤우팅을 적절히 활용해야 안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경기 묘사가 가능하다. 고도의 집중력과 테크닉 싸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경기의 중계를 마치고 나면 경기에서 뒀던 선수들 못지않게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되곤 한다.



14:00

경기 중계 준비



16:00

경기장으로 이동,
중계 준비 2라운드



19:00

캐스터의 백미,
현장 중계

배구는 질투 없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급한 불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식사도 미리 해둔다.



24:00

치열했던
하루의 끝,
또 다른 여정의 길



아직 비어있는 관중석 사이를 지나 KBS N 중계석에 자리를 잡는다. 스포츠 기자들과 구단 관계자, 현장 요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중계 준비 2라운드를 시작한다. 스포츠 중계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날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가 없다. 미리 대본을 외워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중계자의 순발력과 센스, 스포츠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중계의 질을 좌우한다. 배구 해설위원이나 감독, 배구연맹직원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도 배구 캐스터로서의 소양을 쌓는 과정 중 하나다. 배구 보는 눈을 넓혀야 남들과 다른 중계를 할 수 있다.



경기 중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된다. 중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청자 반응을 살피고 자리에 누우면 피로가 상념을 덮는다. 누군가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같은 장소를 찾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배구 캐스터로 7번째 맞이하는 V리그에서 신승준 캐스터는 또 다른 풍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는 캐스터가 있다는 것은 배구 팬에게 고마운 일이다.

범상치 않은 신입사원

염상엽, 조진혁 아나운서
인터뷰

직장이라는 긴 열차의 꼬리칸 탑승에 성공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 몸은 미생이어도 마음만은
자신만만한 완생인 그들은 힘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은 승리자들이자 아직 가슴에 뜨거운 꿈을
간직한 초심자다. KBS N의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신입사원 염상엽, 조진혁 아나운서를
만나 치열한 취업기와 풋풋한 신입사원 생활을
들어본다.



Q. 아나운서는 경쟁률이 치열한 분야인데요. 도
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염상엽___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교내
아나운서 활동을 했어요. 제 목소리가 학교에 울리
는 게 마냥 좋고 뿌듯했죠. 그러다 대학에서 밴
드 활동도 하고 대기업 인턴도 해봤지만 행복하다
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한번은 도전해보자
는 생각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했죠.

조진혁___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라는 직업
이 딱 거기에 맞더라고요. 당시 KBS 손범수 아나운
서가 인기였는데, TV 볼 때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Q.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
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염상엽___저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본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편이기도
하고 대학 때 밴드활동과 버스킹을 해서 목이 쉽게
갈라졌거든요. 매일 발성, 발음 연습을 하고 반년
동안은 노래를 한 곡도 부르지 않았어요.

조진혁___저는 처음 2년 동안은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남자답고 강인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
어서 머리도 올백으로 넘기고 눈에 힘을 주며(?)
면접에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너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어울리니 앞머리를 내리라"고
조언했죠. 그 조언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면접에
합격했어요. 저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저만 몰랐
던 거죠.

Q. 두 분 다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던데요?

염상엽___'내 꿈은 전현무'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요?(웃음) 지난해 말에 SBS <판타스틱 듀오>에 출
연했었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지원했지
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당시엔
전현무 아나운서를 롤모델로 꼽았는데 지금은 이
곳 KBS N의 신승준 아나운서로 목표가 바뀌었어
요.(웃음) 입담이 최고예요.

조진혁___저는 타 방송사에서 스포츠 캐스터로 2
년간 일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하면
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서
KBS N에 지원하게 됐죠. 아나운서로 성장할 수 있
는 기회를 준 전 직장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발칙함과
무모함의
콜라보레이션
염상엽, 조진혁
아나운서



Q. 카메라테스트와 면접 등의 공채 과정에서 가
장 어려웠던 부분 혹은 나만의 특별한 전략
은 무엇이었나요?

염상엽___축구는 원래 좋아하는데 야구와 배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면접관님의 구체적인 질문
에 대답을 못하며 바로 들통이 났죠. 그래서 "축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열심히 배우겠
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셨어
요. 스스로 끼가 많은 사람, 가능성이 큰 지원자라
는 인상을 주고자 노력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조진혁___2차 카메라 테스트 때 장기자랑으로 비
트박스, 춤, 성대모사를 준비했어요. 비트박스는 성
공적이었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실패했죠. 춤은 동
작이 생각나지 않았고 성대모사는 아무도 웃어주
지 않았어요. 중요한 때 실력발휘를 못해서 무척
아쉬웠어요. 대신 목소리를 강점으로 생각해서, 고
음과 저음을 다양하게 들려주며 저만의 음색을 보
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Q. 신입사원으로서 느끼는 아나운서팀, KBS N
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염상엽___사실 아직 분위기 파악 중이긴 하지만
(웃음) 모든 분들이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타 부서
에서 교육 받을 때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물론 팀 내에서 이론,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을 때에는 여전히 바짝 긴장하지만 말이에요.

조진혁___아나운서팀은 가족적이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흐른다고 해야 할까요? 사적으로는 정말
친하고 스스럼이 없지만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모
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합평회를 할 때는 살벌
하죠. 진정한 프로의 세계를 엿본 느낌이었어요.

Q.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로 성장하고 싶으
세요?

염상엽___입담과 순발력을 갖춘 만능 아나운서요.
아직 신입이지만 스포츠 중계를 통해 제 목소리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 됩니다.

조진혁___대중에게 친숙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어느 프로그램든 잘 해
내서 모든 PD님들이 탐내는 만능 아나운서?(웃음)
본질에 충실하며 계속 성장하는 아나운서가 되겠
습니다.

스카이라이프와 함께한 KBS N 겨울철 희망 나눔 활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후토스 어린이 행복 공연

KBS N이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서울SOS어린이마을을 찾았다. 두 미디어 그룹의 훈훈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사랑과 감동이 두 배로 커졌다.

추위도 잊은 훈훈한 봉사 현장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최저 온도를 기록했던 지난 12월 16일,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SOS어린이마을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SOS어린이마을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 양육 시설이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온정의 마음을 나누고자 KBS N과 KT스카이라이프 직원들은 작은 이벤트를 기획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어린이 행복 공연을 진행했다. 먼저 팔을 걷어 붙인 건 KT스



카이라이프 임직원들. 빨간 고무장갑과 앞치마, 위생 모자를 쓰고 본격적인 김장에 나섰다. 여기에 여자 연예인 야구단이 깜짝 게스트로 참여해 힘을 보탤다. 조금 서늘하고 어슬픈 숨씨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복잡복잡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동네 잔치날처럼 흥겨운 분위기였다.

웃고 춤추며 하나된 후토스 행복 공연

김장 담그기를 마치고 어린이 공연의 관람을 위해 장소를 옮겨 모여 앉았다. 3살 남짓의 어린 아이들부터 7~8살 또래의 아이들까지 하나 둘 공연장으로 도착했다. KBS N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마술쇼와 KBS Kids의 인기 캐릭터인 후토스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다.

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선생님들로 공연장의 관람석이 빠르게 채워지자 첫 번째 공연인 마술쇼가 펼쳐졌다. 색색의 천들 사이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마술, 현란한 손놀림의 카드 마술 등이 쉴 틈 없이 이어지며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이 한 명이 직접 보조로 참가

하는 마법에서는 천진한 어린이의 모습과 마술사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노래와 함께 후토스 캐릭터가 깜짝 등장, 신나는 댄스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일어나 신나는 율동에 몸을 맡겼다. 후토스 친구들의 매력에 흠뻑 빠진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아쉬움이 남는 듯 찢한 포옹을 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산타로 변장한 직원들이 KBS N에서 준비한 장난감 선물을 하나하나 나눠주며 아쉬움을 달랬다. 함께했던 오늘의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기대하며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순수, 명예, 청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찬가

드라마 <화랑>

KBS 월화드라마 <화랑>이 주인공의 화랑 입성과 삼각 로맨스 구도를 본격화하며 이야기의 각을 세웠다. 신라시대 실존한 엘리트 미소년 집단인 '화랑'에 대한 역사적인 호기심을 담아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드라마 <화랑>은 잊혀진 역사의 정신을 제고하는 사극이자 청춘들의 성장기다.

6세기 삼국시대, 신라의 진흥왕 때 조직된 '화랑'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소년 인재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학문과 무술 수련을 쌓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외향적인 특징과 신라의 통일을 이끈 주역이라는 점에서 화랑 이야기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신비롭다. 화랑은 어떻게 통일 신라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신라의 정신으로 자리잡기 위해 어떤 통과의를 거쳤을까? 이러한 질문과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드라마 <화랑>은 역사적인 사실에 현대적인 상상력을 더해 그 답을 구해간다. 드라마의 배경은 화랑이 처음 조직되던 시기. 어린 진흥왕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며 혼란하던 정국을 그리며 화랑의 창건 배후에 숨겨진 정치적인 이권 다툼을 담아낸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름다운 사내를 모아 신라의 미래로 삼고자 했다'는 지소태후와 그녀의 남편 박영실 간의 대립 구도는 향후 드라마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우정과 사랑의 청춘 연가

<화랑>은 훈남 배우의 대거 등장으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아왔다. '훈내 폭발'하는 박서준과 박형식은 저마다 남성미와 다정함을 어필하며 고아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를 이룬다. 거친 매력에 무예가 뛰어난 박서준과 금수저 능력남 박형식의 매력 대결에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 여기에 최만호, 도지환, 김태형 등이 꽃미남 화랑으로 출연해 팬심을 자극한다. <화랑> 속 청춘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순수함과 열정을 갖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친구에 대한 복수, 왕위 계승,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등 난관에 봉착하고 갈등을 겪지만 타협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지소태후로 대변되는 권력자들과 대조를 이룬다. 순수함과 열정을 간직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1500년의 시간을 넘어 소환된 화랑들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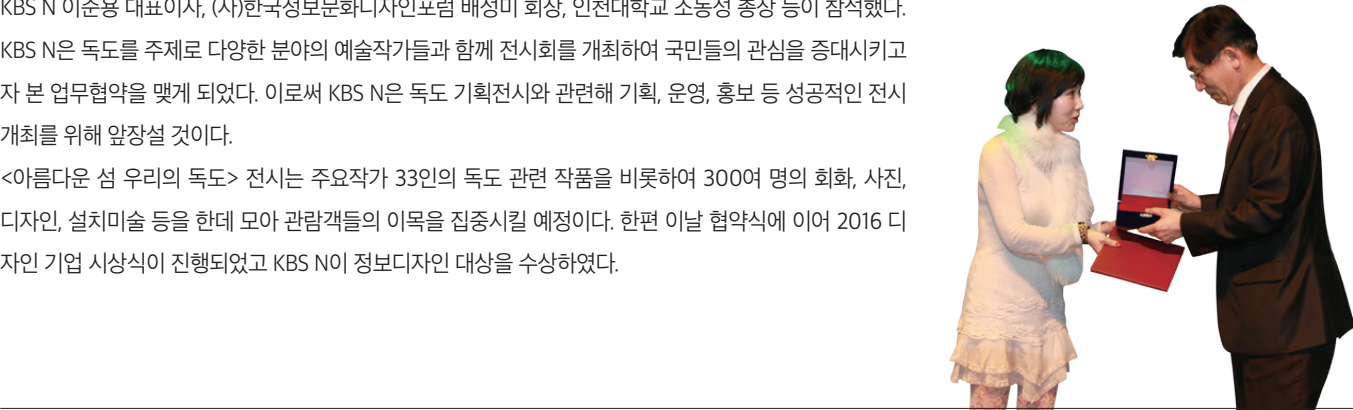
KBS N,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 알리기 앞장서

KBS N - 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업무협약 체결

KBS N이 독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시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월 28일(수) 여의도 아라쿠르즈 호에서 광복 72주년 기념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 기획전시의 성공 개최를 위한 KBS N과 (사)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의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KBS N 이준용 대표이사, (사)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배성미 회장,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등이 참석했다. KBS N은 독도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본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KBS N은 독도 기획전시와 관련해 기획, 운영, 홍보 등 성공적인 전시 개최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 전시는 주요작가 33인의 독도 관련 작품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회화, 사진, 디자인, 설치미술 등을 한데 모아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2016 디자인 기업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KBS N이 정보디자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색채의 마술사’ 훈데르트바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BS N 주최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회 개막식 개최

훈데르트바서 전시회 <Green City>가 많은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회 <Green City>의 개막식이 지난 12월 13일(화) 세종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KBS N 한희원 정책기획본부장, 훈데르트바서 재단 요람하렐 이사장, 세종문화회관 이승엽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KBS N 조은지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된 뒤, 수석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전시관람이 이어졌다. 단순한 미술 전시를 넘어 훈데르트바서가 꿈꾸었던 녹색 유토피아를 함께 상상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00여 점에 이르는 오리지널 회화작품, 건축모형 6점, 태피스트리 5점, 그 밖의 포스터 및 건축스케치 총 140여 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아울러 전시 관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 공연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며, 겨울방학을 맞아 전시관을 찾은 아이들을 위해 KBS Kids에서 공동기획한 수업 창문 그리기 키즈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회 <Green City>는 2017년 3월 12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들 모두 모두 모여라!

아나운서팀, 학생들 위한 직업체험교실 특강 나서

미래 아나운서를 꿈꾸는 중학생을 위해 KBS N 아나운서팀이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 특강을 진행했다.



“아나운서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 “아나운서와 스포츠 아나운서는 뭐가 달라요?” 중학생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지는 이곳은 다름 아닌 KBS N 아나운서팀의 직업체험교실 특강 현장이다. 2015년부터 KBS N 아나운서팀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해 왔다. 이날 강성철 아나운서가 방문한 곳은 상암동 인근의 송실중학교. 여자 아나운서가 온다고 선생님한테 속은 학생부터 아나운서 꿈나무 학생까지 각자 온 이유는 다르지만, 특강이 시작되자 모두 이야기에 집중했다. 이날 학생들은 약 2시간 동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다.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비단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뿐만이 아니다. 특강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또 다른 세상을 간접 체험하고, 자신의 앞날을 달리 상상해볼 기회를 갖는다. KBS N 아나운서 직업체험교실 특강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작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Notice

스타들의 농구 승부! 2017 KCBL 연예인 농구리그

프로 못지않은 실력의 연예인 농구단이 정식으로 승부를 겨루는 2017 KCBL 연예인 농구리그!

9개 팀이 참가하여 3개월간 조별 리그와 4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본 경기에는

박진영, 정진운, 오만석 등 한류스타가 대거 참여하여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스타들의 농구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회기간

2017/01/07(토) ~

2017/03/05(일)

대회장소

구리, 부천, 용인,
아산, 청주, 인천 등
WKBL 6개 구장

개막전

2017/01/07(토) 19:00~

인천 도원체육관
진혼 VS 코드원

2017 KCBL 연예인농구리그는 KBSN **SPORTS** 에서 전 경기 생중계됩니다.

N pick

쿨 가이 VS 웜파탈?

조진혁, 염상엽 아나운서의 인터뷰 현장.

신입사원의 애환을 표출해 달라는 요청에 “아직 애환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계속되는 사진 촬영에 지칠 때 즈음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은 ‘남성 잡지 화보 느낌’. 신입사원의 패기는 이런 걸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다양한 포즈와 입체적인 표정이 이어지고 숨겨진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좌) 조진혁 아나운서 (우) 염상엽 아나운서



(24) 조진¹⁰혁 아나⁰은서 (7) 염상¹⁰영 아나⁰은서

MON | TUE 10:00

KBS2TV 월화 드라마

|| 박서준 | 고아라 | 박형식 | 최민호 | 도지한 | 서예지 | 조운우 | 김태형 || 김지수 | 김청원 | 성동일 | 최원영 | 김광규 | 유제명 | 김원혜 | 이다인 || 박정호 | 이광수 | 김민준 | 김민 | 박은영 | 박은성 | 김영조

[illegible]

제작지원:                    <